

# 동물학대와 한의학 효율성

**장철봉**

미국 Rose Slauson Animal Hospital 원장,  
국제수의침구사협회 공인수의침구사  
cbchangdvm@gmail.com



중국에서는 지금도 성행하지만, 한국에서도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곰사육자가 웅담을 얻기 위해 살아있는 곰의 배를 갈라 플라스틱 호스를 쓸개속에 삽입하였다.

그리고는 쓸개즙이 호스를 통해 계속 흘러 나오게 좁은 유리관에 곰을 가두었다. 호스를 통해 내려오는 쓸개즙을 모아서 건조한 후 웅담이란 고가 약제로 한약방에 팔기 위해서였다.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 분비되며 음식이 창자에 있으면 간에서 창자로 운반되어 음식을 소화하는데 사용한다. 그러나 음식이 창자에 없으면 간에서 쓸개로 직접 옮겨와 쓸개에 임시 저장된다.

쓸개즙은 지방을 효소하는 쓸개즙염(bile salts)이 주성분이다. 서양의학으로는 쓸개즙은 지방 소화 효소일 뿐이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쓸개즙을 건조한 웅담은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다.

곰의 쓸개즙 즉 웅담은 차갑고 쓴맛이 있다. 한의학 편성상 찬 것은 열을 치료하는데, 쓴 맛은 조습작용을 해서 담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즉 눈병(각막염)이나 허리 디스크 혹은 중풍 같은 열증 또는 혈기가 막힌 데 널리 이용하는 약제다.

우리는 쓸개즙이 간에서 생성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한의학상 간은 노여움을 다스리는 장부다. 그러니 간에서 생성되는 쓸개즙 역시 노여움과 관련이 있다.

자연에서 살던 곰이 가두어졌다. 그의 배가 갈리어 지고, 쓸개주머니에 튜브가 박혀서 쓸개즙이 유출된다. 때문에 소화장애가 발병되어 몸이 허약해져 간다. 뿐만 아니고 좁은 철창우리속에서 보통에 신음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 처한 곰이 너그러운 감정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 이들 곰으로부터 획

득한 쓸개즙에는 '노여움' 이란 독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의 경희대 한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LA에서 한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K한의사 역시 나의 의견에 동감한다. 그는 “웅담이 원래 좋은 한약제이기는 하나 분노를 품고 있는 곰의 쓸개에서 뽑아 낸 쓸개즙에는 독성 역시 품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에서 수입한 웅담은 한약제로 효력도 없거니와 독성마저 감추어져 있기에 한국의 한방에서는 한약제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람이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면 동물은 독을 품게 되고, 결국 그 독이 사람에게 미치게 됨을 중국계 웅담을 통해 우린 알 수 있게 된다. 그러기에 우리가 좋은 식품을 갖기 위해서라도, 소나 돼지같은 농장동물을 사육할 때에는 그들이 인간에게 노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그들에게 편안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소, 돼지, 닭을 사육할 시 그들 동물들이 다리 또는 날개를 맘껏 뻗칠 수 있도록 넓은 장소에서 사육해야 한다. 단기간에 살찌우기 위해 좁고 낮은 우리에 가둬 거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동물학대이고 이런 사육방법 역시 그들의 몸에 독성을 품게끔 조성한다.

동물학대 방지 뿐만 아니고 우리의 건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도 우리는 동물을 좁고 비위생적인 곳에서 사육해서는 안 된다. 약효는 없고 대신 독성을 품고 있는 중국계 웅담처럼, 학대를 받으면서 좁은 우리에서 사육되는 동물과 그들이 인간에게 제공해 주는 식품에는 악감정이 스며있을 수 있음을 한번쯤 생각했으면 한다. ☹